

## 국농대여학생회 총노선 1차 토론회

96년 평가

1300여성 여학우의 삶 곳곳에서 그들을 인간화,  
새역사의 새주인으로 세워내는 농대여학생회

### 기본과제

1) 과여학생회의 건설, 강화로 실질적인 여학우의 의견 수렴기구가 된다.

- 단여운위의 강화

- 과여학생회 건설(과여학생회 발전 소위원회)

### 2) 일상사업의 강화와 대중화

- 여학생 휴게실 개방

- 정기적인 행사(취업간담회, 성교육 실시)

- 농대 특성에 맞는 사업(농활: 아동반, 여농반 주체 마련, 활성화)

✓ - 농대 여학우들의 편리한 생활(화장실 자판기 관리, 과방에서 금연 전면 실시)

### 3) 연대사업의 강화

- 정신대문제 해결(수요집회 가기, 후원금 모금)

- 탁아 소모임

정신대문제

==== 평가 ===

### 1) 총노선평가

총노선은 그 해 여학우들의 올바른 이해와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다. 96년의 총노선은 매우 바른 모습을 지닌다. 그러나 집행능력의 부족으로 올바른 실행이 되지 못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작년을 돌아보고 성과점은 받아들이고 비판받아야 할 것들은 비판하면서 올해의 올바른 모습을 잡아가는 것일 것이다. 작년 한해 동안 농대여학생회는 많은 오류들을 남겼다. 총노선을 수립은 그것의 실천을 담보로 하나 실제로 행동하지 못했다. 여학생 휴게실을 작년 2학기 때 개방을 하였으나 여휴에 남학우들이 드나들고 할 정도로 학우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휴 개방은 문을 개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휴의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여휴의 활용도를 높여내는 것까지 의미할 것이다. 앞으로 여휴 관리에 있어 이점을 유념해야겠다. 여름 농활을 수행하며 아동반, 여농반 주체를 세워냈으나 조직적이지 못한 모습 또한 존재하였다. 실제 여농반 주체를 세웠으나 회장님의 모든 일을 하는 불상사를 낳았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만들어낸 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12대 농대여학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하나로 사람을 만들고 즐겁게 생활해 나가야겠다.

### 2) 사상운동평가

여기서 사상이라 함은 여성자주화사상을 의미하며 여성자주화사상이라 함은 말그대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린 과연 얼마나 여성자주화사상을 생각했고 들어보았던가를 생각해보면 말없이 우리의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회 고유의 사업들 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합의해 내고자 했던가 생각해보야겠다.

### 3) 조직운동평가

96년 한해 동안 처음엔 6명으로 시작했던 여학생회가 1학기 동안 회장 외 1명의 간부만이 함께 활동을 했었고 같이 하지 못함으로 2학기 동안 4명의 96학번 조공은 조직화 되지 못한 일꾼들과 함께

여학생회는 도약을 시도했으나 조금은 역부족이었다.

#### 4) 대중운동평가

예비대학, 대동학교, 농활, 가을걷이 한마당 등 여러 사업들 속에서 여학생회 내용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모아 왔던가 반성해보아야겠다.

= = 마무리하며 = =

작년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점들을 남기며 올 한해 농대여학생회의 새로운 도약을 외치며 이제 더 이상 여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들리지 않게 활동해야겠다.

총노선을 준비하면서 작년의 총노선에서 그리 발전한 것은 없을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 학교가 여성 해방에 대한 발전이 없어서 이기도 하고 작년 여학생회의 반성점이기도 하아다.

올 농대여학생회에서는 지속적인 일상사업과 선전을 통해 학우들에게 여학생회를 알려내고 스스로 여학생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와성을 만들고자 한다.

#### 97년 농대여학생회 총노선 들어가며

경쟁, 갈등이 아닌 함께하는 여학우의 삶,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학우들의 삶이  
자주적 여학생회를 만들어 갑니다.

97년 농대 여학생회가 풀어야 할 과제

##### 1) 과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건설

- 학우들에게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올바른 여학우들의 의견 수렴기구로 만들어 낸다.

##### ▲ 과여학생회 학칙개정

- 일반적으로 모든 과 학칙에 과대표, 부대표는 개재되어 있으나 여대표는 없고 보통 있는 과도 여대표가 부대표의 위상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대표의 본래적 의미를 되씹어보고 학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학칙개정운동을 제시한다. 1학기 동안 학우들 과 이야기하고 여짱들과 만나면서 2학기 개강총회 때 상정한다.

##### ▲ 과여학생회 회칙만들기

과에 학생회 회칙이 있다. 여학생회도 회칙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다. 여학생회 회칙을 만드는 것은 여학생회 건설을 바라보면서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한 것으로 매우 주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 ▲ 농대여학생회의 탁아소모임 건설(탁아활동활성화)

응자부에 있었던 디딤시랑, 천섬과에 있는 디딤 후원회를 강화하고 농대소모임으로 묶어 2학기 중으로 건설될 과여학생회 건준위에 속한다. 내년 과소모임 건설의 주체로 만들어간다.

##### ▲ 각 과여성문제연구소 모임 건설을 준비한다.

올해 여학생회 강화사업의 최대의 목표로 여성문제를 통한 과여학우들의 관심을 모아 단결력을 과시해 나가며 언제나 과 행사에 참석율이 저조함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농대여학생회의 여연을 중심으로 2학기 중 건설될 과여학생회 건준위의 사업의 일환으로 과여연 건설을 준비한다.

##### ※ 과여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 체계에 대한 고민

98년 과여짱을 고민하는 人 2명, 97년 과여짱 1명, 98년 탁아, 여연짱 1인 그리고 97, 98년 농대여

짱을 중심으로 내년 과여학생회의 상을 만들어간다.

건설시기:98년 농대여학생회 선거후 11월 말경 건설후 여학생회 이월 시기와 함께 진행

## 2) 일상사업 강화

### 여학우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정기적인 여학생회일상사업과 학우들과 함께하는 사업

#### ▲ 정신대 할머니 후원회 건설

가을걷이한마당때마다 진행해오던 정신대할머니 후원바자회 사업을 발전시켜 정기적인 후원사업을 고민합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수요집회를 참가하고 일일 호프, 바자회 등을 통한 경제적 후원사업을 만들어 갑니다.

#### - 수요찻집

※ 목요찻집으로 바꾸면 의미가 많이 상실될까?

※ 찻집을 가지는 기간은?

① 한달에 한번 ② 한달에 두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기타

- 한달에 한번의 정기적인 의사개진운동

※ 이름을 만들어야 함(예: 아침이슬, 참소리, 우리들의 야그, 이바구…)

#### ▲ 대동학교 내실화

#### ▲ 여학생회 소식지 '와성 여성' 빌간

편집부 사업계획서 참고

#### ▲ 농대2호관 여학생 휴게실 관리 강화

농대 여학생회의 주제의 달 정해 학우들과 그 달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만들어간다.

예) 4월 : 4·9통일 열사 시대정신 계승의 달

5월 : 한총련·전여대협 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달

6월 : 정신대문제 완전 해결의 달 - 95년 뜨겁게 달구었던 정신대문제 완전 해결 국회 청원 서명을 생각하며

7월 : 여성농민의 달

8월 : 성폭력 방지의 달 - 96년 연세항쟁에서의 성폭력을 고민하며 이 땅의 성문제의 원인을 고민해본다.

9월 : 여성 노동착취 추방의 달 -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있는 달로 명절 때마다 올바로 대접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고민한다.

10월 : 주한미군 철수의 달 - 주한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씨, 이기순씨의 추모제와 같이하며 주한미군 성범죄에 대해 고민해본다.

###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 ▲ 통일을 고민합니다.

- 정신대문제 남북연대투쟁

- 주한미군 성범죄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투쟁

- 여연 중심의 북한여성 바로알기운동